

“사리구 현등사 명문 지워버리면 그만인데도...”

유홍준 청장 발언에 교계 ‘발끈’

국감서 “향온향습 안되는 유물전시관” 폄하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에 대해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 청장은 9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성보박물관을 ‘향온향습도 안 되는 유물전시관’으로 폄하하는가 하면, 삼성문화재단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불교계의 불만을 샀다.

“소유권이 분명한 사찰출토문화재를 사찰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 청장은 “향온향습 시설이

잘 된 통도사성보박물관을 제외한 사찰박물관은 ‘유물전시관’에 불과하다”며 사찰박물관 시설의 취약성 때문에 반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현등사 사리구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재현 의원이 “사리구에 ‘현등사’라는 명문이 있어 소유가 분명한 만큼 삼성 측이 장물인 줄 모르고 구매했을 가능성은 적다”며 삼성문화재단의 장물취득 의혹을 제기하자 유 청장은 “‘현등사’라는 명문을 지워버리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소장처가 박물관이기 때문이며, 그나마 다행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성보박물관과 현등사 사리구에 대한 유 청장의 답변에 대해 불교계는 유 청장의 성보문화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계종 문화국장 혜조 스님은 “자신들이 성보박물관을 지어놓고는 향온향습도 안 되는 유물전시관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며, 현등사 명문을 지워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다”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또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도굴범들의 스승인가! 갑잡이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유 청장 발언의 취지를 따졌다. 중앙신도회는 논평에서 “천륜을 저버린 자들에 의해 조상의 무덤이 파헤쳐져 시신과 관이 호암미술관처럼 좋은 시설과 관리시스템에서 잘 보존돼 전시되고 있다면 지금처럼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부당하게 약탈된 문화재 반환을 추진하고 우리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첫 여성신도회장 체제 출범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의정씨 취임

조계종 중앙신도회 23대 회장에 현 회장권한 대행인 김의정(64·사진)씨가 선출됐다.



김의정 회장은 “임기 중에 반드시 신도회관을 마련할 것이며 신도회

대이은 불교사랑 화제

김의정 회장은 독실한 불교 집안 출신이다. 김 회장의 부모는 바로 쌍용그룹 창업자인 김성곤 회장과 명원 김미희 여사. 특히 김미희 여사는 전국 사찰의 크고 작은 불사에 동참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차 문화를 복원한 차인으로써 널리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부모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국 사찰의 각종 불사에 동참하셨었다”며 “최근에야 여러 스님들로부터 부모님의 보시행에 대

의 재정 지원 등을 위해 진력하셨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대의원 총회에 이어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회향50년 정진50년’을 주제로 신도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해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어머니는 신도회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무척 아쉬워하셨다”며 “유업(遺業)이라 생각하고 꼭 신도회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김의정 회장의 친인이다.

유철주 기자

종단협 대표, 청계천 둘러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대표들은 9월 29일 2년 3개월의 복원공사를 끝내고 새 모습을 드러낸 서울 청계천을 둘러봤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고정 정사 등 40여 종단협 대표들은 이날 분수광장을 출발, 광통교 밑을 지나 삼일교까지 새 모습으로 단장한 청계천을 둘러봤다.

김강진 기자

정각사, 장애복지관 수탁

군포 정각사(주지 정영)가 군포시 청으로부터 군포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체로 선정됐다. 정각사는 9월 23일 군포시 복지단체 심사실무위원들로부터 위탁운영 신청을 한 3개 단체 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위탁 운영체로 결정됐다. 복지관은 연면적 9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199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이 운영해왔다.

김강진 기자

난치병 어린이돕기 바자

3개 종교가 연합으로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나선다. 서울 화계사(주지 성광)는 수유동 송암교회와 천주교 수원1동 교회 등과 함께 10월 8일 ‘제6회 난치병 어린이돕기 종교연합 바자회’를 개최한다. (02)902-2663

김강진 기자

포교원, 사이버법당 ‘108월드닷컴’ 오픈

불보살상 꾸미고 공양 올릴수 있게 설계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 세상에 접속하기만 하면 자신만의 3차원 불보살상을 꾸미고 공양물을 구매해 공양도 올릴 수 있는 가상공간이 인터넷 상에 마련됐다. 2년여의 작업 끝에 9월 27일 조계종 포교원이 개통한 ‘108월드닷컴(사진)’에서다.



“108월드닷컴”은 인터넷 상에서 예불과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된 신개념의 예불시스템이다. ‘108월드닷컴(www.108world.com)’으로 접속하면 자신만의 법당에 곧바로 입장할 수 있으며 타 가입회원의 사이버법당도 구경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상의 개인신행공간이 될 자신만의 법당은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 사용자의 취향대로 꾸미는 것이 가능하다. 부가기능으로 불교경전, 염불 등 각종 미디어 정보가 담긴

문화재기능인 대상 봉원기작 ‘관음보살 좌상’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최기영)가 주최한 작품전 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에 봉원기씨(목조각 1972호)의 ‘관음보살 좌상’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박인주(목공 1786호)씨의 ‘문간’이, 우수상에는 김석만(석공 1805호)씨의 ‘보현보살상’, 박정인(철공 2766호)씨의 ‘연리차’,

박갑용(도금 2781호)씨의 ‘삼세불회도’가 각각 수상했다. 특별상(조계종 총무원장상)은 노정용(석조각 1732호)씨의 ‘삼화령 미륵불’이 뽑혔다.

200여 출품작과 역대 우수작가 작품, 중요무형문화재 작품 등은 10월 12일까지 덕수궁 석조전에서 만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법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기념법회’가 9월 27일 일산불교병원 5층 대강당에서 봉행됐다. 국내 최초로 초대형 양·한방합진 불교종합병원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린 이날 개원법회에는 조계종 중흥 법전 스님,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 홍기삼 총장, 이석현 의무원장을 비롯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1000명이 참석했다. 글·사진=조용수 기자

내원암 토지 소유권 소송했던 친일파 후손 봉선사 찾아가 공식 사과

내원암 일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던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들이 봉선사를 찾아가 공식 사과했다.

봉선사 총무과장 해문 스님은 “9월 27일 오후 소송을 제기했던 이모씨 부부가 주지 철안 스님께 공식 사과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이모씨 부부는 봉선사 큰법당을 참배한뒤 철안 스님 등을 만나 “내원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소를 취하한

만큼 봉선사도 취하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철안 스님은 “소취하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찾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소송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봉선사와 내원암, 중앙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10월 6일 오후 6시 30분 조계사 앞마당에서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유철주 기자

사상초유의 총장불신임 투표를 벌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회(회장 이시영, 이하 경주교수회)의 행보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주교수회는 9월 27~29일 오후3시까지 경주캠퍼스 소속 평균수들을 대상으로 ‘현 홍기삼 총장의 직무수행이 적정하냐?’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경주교수회 소속교수는 370여명. 이 가운데 투표권이 없는 일부 교수들을 제외한 234명 가운데 165명(70.5%)이 참여해 매우 높은 투표참여율

그러나 교수회장 이시영 교수는 “학교가 어려운 때에 대학당국과 교수회 직원 등 구성원 모두의 화합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평균수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상경대학의 한 교수는 “투표참여를 독려했던 교수회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불신임 투표는 왜 강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문대학의 또 다른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불신임 투표 해놓고 결과 공개 ‘미적미적’ 왜?

을 보였다.

그러나 경주교수회는 돌연 투표결과 공개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주교수회는 투표결과를 놓고 이날 오후 3시간여의 격론을 벌인 끝에 투표결과 공개와 향후대응을 회담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론의 내렸다. 불신임투표 강행의 명분이 일방적인 부총장 선임과 교수연구업적 평가 강행 등으로 고조된 홍기삼 총장체제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투표결과 공개유보 결정에 대한 평균수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도 “학교측 모 인사로부터 평균수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가 심했던 것으로 안다”며 “투표결과를 밝히지 않은 것은 투표에 참여한 165명의 교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분개했다.

이러한 평균수들의 반응에 대해 이시영 교수는 “교수들이 집행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균수들의 정서가 반영되지 못한 이번 교수회의 결정으로 동국대는 또다시 시끄러워 질 것으로 보인다. 조용수기자

공 고

중헌 제 52조, 제 53조 및 총무원장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32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제 32대 총무원장 선거일**
불기2549(2005)년 10월 31일 월요일(음 9월 29일) 오후 1시 ~ 4시
- 선거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총무원장 입후보자 자격**
승랍30년 이상, 연령50세 이상, 법제 2급 이상의 비구로써 총무원장선거법 제 9조 제 2항, 제 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후보자 등록기간**
불기2549(2005)년 10월 21일(금)~10월 23일(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입후보자 등록서류**
1) 등록신청서 1부(선관위 양식)
2) 호적등본 1부(원적이 표시된 등본)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합판) 5매
5) 투·개표참관인 신고서 1부
6) 입후보자 신상명세 및 정책광고내용(일반신문 5단통 분량)
- 입후보자 등록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선거권자** : 책임중인 중앙총회의원, 각 교구총회에서 선출하는 10인(본사주지 포함)
- 선거권자의 자격** : 구족계를 수지한 본종 계승승려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멸민·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2) 공권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호계원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기타 중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인단 명부 열람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문 의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02)2011-1867 / FAX (02)733-8286

* 교구총회 선거인단 선출기간: 불기2549(2005)년 10월 16일(일)~10월 20일(목)

불기2549(2005)년 9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도 공